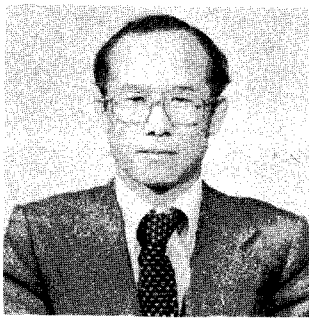


프로야구 와 양계



신 정 재
(SF 과학사료 대표)
(본지 편집위원)

지난 10월 코리안시리즈에서 해태는 예상을 뒤엎고 청룡에 4승 1무로 이겨 금년 프로야구의 왕자가 되었다.

프로야구가 미국 일본 등에서 일반 국민들에게 인기가 있는데에는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이유는 '기록에 의한 기록의 기록을 위한' 경기라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선수나 각 팀의 기록을 마음속에 두고 자기나름대로 히트를 칠 것인가, 스트라일을 던질 것인가 또는 A팀이 이길 것인가 등을 기대하며, 예상하며. 관전하는 것은 곧 관전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속으로는 선수도 되고 감독도 되어 같이 경기를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로 느끼게 하는데 있다. 어쨌든 야구에서의 기록의 중요성은 여러가지로 강조되는데 이는 양계업에 있어서의 기록의 중요성과 일맥상통하는게 있어서 가끔 양계와 비교하게 된다.

야구의 기록에는 여러가지가 있겠으나 우선 중요한 것을 열거해 보면 타율, 타점, 홈런, 도루, 승리타점, 실책, 투수성적 등을 들 수 있겠다. 개인적으로는 각 기록의 수위를 차지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결과적으로 자기팀의 승리를 위하여 열심히 뛰는 것이 야구다. 각 선수의 타율이나 타점은 산란율이나 마찬가지로 아닐까? 타율이건 도루건어느 면으로는 사료효율과도 일맥상통하지 않을까?

어쨌든 프로야구는 기록위주여서 아무리 신체가 건강하고 미남이라도 타율이 높지 않으면 경기에 임할 수 없으며 결국에는 산란율이 떨어져 도태되는 산란계같이 운동장을 떠나야만 하는 것이다. 그래서 프로야구 구단은 매년 시즌이 끝나면 각 선수의 기록을 평가하여 성적에 따라 연봉을 가감하며 필요없는 선수는 내보내고 부족된 분야의 선수는 보강을 하게되는 것이다. 산란율을 일정간격으로 조사하여 도태시키고 갱신계를 인식하는 양계

인의 마음이나 프로야구 구단이나 냉정한 마음은 마찬가지로 하겠다.

지난 11월 12일 열린 세계가금학회 한국지부 추계세미나에서 P 사료의 김영옥부장은 현 양계업계의 문제를 제기하고 그 타개방안을 발표한적이 있다. 1960년대 말까지 축산업의 75%를 차지했던 양계업이 금년에는 25%선으로 급격히 줄어든데는 양계의적 조건으로 타축산업종(양돈, 비육우, 유우 등)의 상대적인 증가와 양계업의 내적인 이유로서 수익성의 저하와 경영기술면에서의 미비점을 지적하고 있으나 이를 긍정적인 측면에서 보면 오히려 안정된 분위기에서 단위 생산성을 높여 수익성을 향상시킬 수 있음을 강조하고, 이러한 향상은 물론 사양가 혼자 힘만이 아닌 유통문제와 제도적인 모순점의 개선을 전제로 하고 있다. 양계인 스스로 수익성 향상을 위한 사양경영관리 방안으로서 사양가들이 직면하고 있는 가장 어려운 문제점과 개선점을 보면 산란피크, 산란율의 관리와 지속성, 생존율, 사료효율, 난중, 난질, 기록, 경영분석에 관한 문제들이라고 기술하고 있다.

양계의적인 문제는 물론이고 위에 지적된 문제점을 해결 개선하기 위해서는 사양가 개개인보다는 업계 전체의 입장에서 해결하는 것이 양계인 전체의 사는 길이 아닌가 생각된다.

나는 가끔 사양가는 닭을 거느린 프로야구단의 감독이라 생각되고 또 나아가서 양계업계 전체를 다른 축종과 경쟁하는 프로야구팀으로 비교 생각하는 버릇이 생겼다.

기록! 이것은 양계이건 프로이건간에 두말할것 없이 중요하다. 그러나 그 기록은 양계업 전체의 경기가 좋을 때나 자기팀이 승리 혹은 우승할 때에 빛나는 것이다. 또 타율이나 모든 기록이 좋지 않은 선수도 팀이 어려울 때 또는 지고 있을때 공헌하는 선수가 기록이 나쁘다고 푸대접 받을 수는 없다. 또 자기의 기록은 희생해서라도 팀을 승리로 이끌기 위해 희생번트를 대는 마음이 중요한 것이며 삼복더위철에 한탕(?)할 것을 매년 기대하

며 브로일러를 넣었다가 헛탕(!)을 치는 무계획함과 같은 흠련을 치러다 스트라이크 아웃을 당하는 것이 문제인 것이다.

업계가 안고 있는 누적되어온 문제는 프로야구팀이 팀 내의 조화를 이루듯이 또 기록에 의하여 작전을 짜듯이 양계업계도 이제 진지하게 보고 개선해야 되지 않을까 한다.

양계를 하여 돈을 벌고 다른 분야에까지 투자를 하고 기업을 늘린 것은 분명히 한 개인의 기록은 좋다고 평가될 수 있다. 그러나 양계업계 발전에 얼마나 공헌하고 업계가 어려울 때 얼마나 기여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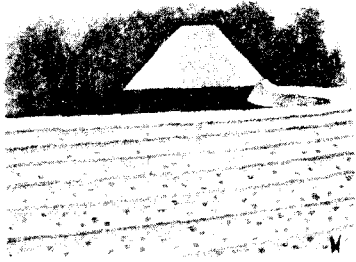
금년시즌 야구에서 개인 기록이 좋은 선수가 많았던 삼성팀은 개인성적은 별로 랭킹에도 들지 못한 선수들로만 짜여 있는 삼미팀보다 성적이나 인기면에서 좋지 않은 것을 볼 수 있다. 자기팀이 많은 점수로 이길 때 흠련을 몇 번 때려봐야 팀에는 한개의 승리가 보태질 따름이지만 개인기록은 계속 개선되는 것이다. 단 한점으로라도 승리할 수 있는 승리타점이 더 값있는 것이다. 9회말 공격에서 더드 베이스에 있는 런너를 끌어들이기 위하여 희생타를 날려 자기는 줄더라도 팀을 승리로 이끄는 희생과 용기가 더 중요하다는 얘기다.

희생타를 쳐서 팀이 승리한다면 그것은 희생타가 아니라 승리 타점인 것이다.

수수감축을 해서라도 업계의 불황이 거뒀진다면,

그것은 감축이 아니라 장래의 수증가인 것이다.

‘죽는 것이 사는 것이다’라는 말이 있듯이!



얼마전에 양계협회에서는 입추수수 혹은 분양추수 줄이기 운동을 벌인 것으로 알고 있다. 계속되는 불황 특히 브로일러 업계의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한 타개책의 일환으로 업계 자체내의 해결책이라 생각된다. 참 어려운 얘기다. 내가 몇% 입추 혹은 분양추를 줄이면 다른 사양가만 좋아지리라고 생각되고, 내가 줄이면 그만큼 나의 손해도 적고 업계 전체의 손해도 적어진다고 생각하기가 힘들다는 얘기다.

그러나 업계의 경기가 좋을 때 홈런 여러개 치는 것보다 지금같이 어려울 때 희생타 혹은 타점의 가치는 더욱 빛나는 것이며 전체가 승리하는 것이다. 이제, 어려운 업계의 불황을 이기기 위하여 한방에 역전시킬 생각은 하지 말고 타율과 타점(산란율)을 향상시키고 도루(사료효율) 혹은 핀치히타, 핀치런너등 모든 수단을 동원하고 필요하다면 희생타(수수감축)도 감수해야겠다. 그 다음에 유통이나 양계업 외적인 문제는 관계 유관기관에 협조를 구해야 하지 않을까?

희생타를 쳐서 팀이 승리 한다면 그것은 희생타가 아니라 승리타점인 것이다. 수수감축을 해서라도 업계의 불황이 거둬진다면 그것은 감축이 아니라 장래의 수수증가인 것이다.

‘죽는 것이 사는 것이다’라는 말이 있듯이!



“최신의 도계 시설을 우리 실정에 맞게” 과학 시스템은 외국에서 10년전에 쓰던 진부한 시설이나, 우리 실정에 맞지 않는 턱 없는 시설을 공급하지는 않습니다. 항상 최선의 시설을 귀하의 실정에 맞게 적절히 조화시켜서 공급해 왔습니다. 7번 째의 메인(Meyn) 가족을 찾습니다.

MEYNE 도계기의 베스트 셀러

과학(축산)시스템

서울 · 성동구 능동 246-10
☎ 445-0212, 1886